

# 時兆에 對한 新所感과 新敎示 (一)

金 相 溶

巡回夏休中에 나의 信仰狀態를 낮으로 밤으로

在在의 狀態를 默想과 祈禱로 探省할 際에 特別히 再

臨에 對한 準備如何의 感覺을 一層더 深新케 하여 주시기

로 드대어 聖經中에 보인바 末時代의 徵兆에 對하여

十以上에 達하는 지라。이에 그것들을 順序的으로 左에

列擧하여 讀者諸氏의 陳證하오니 幸히 一覽을 乞하

나이다。

一、 거짓그리스도와 거짓預言者들이 만히 나타남 (現

○五。 거짓그리스도는 곧 (거짓救世主)의 뜻이니 現

今各種의 主義, 思想, 運動의 首創者는 나니 「거짓救世

主」요, 또 그 主義와 理想이 早晚間 成立되어 이 世

上을 (救濟) 하리라고 預言的으로 宣傳하는 者들은 다

(거짓預言者)들이 올지다。

(注意) 革命, 改造, 救濟의 事業이니 在 (濟世主)니

하고 떠드는 것들이 다 이 거짓類니라。

二、 戰爭消息을 或耳로 쓰든 或目擊함 太廿四〇六

三、 戰爭하는 것을 或目擊함 太廿四〇五、 示六〇三

四、 百姓들이 百姓의 攻擊함 太廿四〇七

(注意) 그 國民이 그 國民外리 이黨과 더黨外의 黨

爭이니, 例컨대 多黨대入黨會(SM)의 鼓吹를 贊

又教會內의 黨爭 (○三절의 證)을 贊은 것들。

五、 나라이나 라를 太廿四〇七、

이 는 곳 示六章四節의 (赤馬) 時代의 일이니, (아아대

과은의 과대진에 대하여 太廿四章七節이 하와를, 大槪赤色은 血

의 색인즉 多戰爭을 差持한 大使가 血色의 말을 하고나

[ 四 ]

같은 戰爭을 니르켜 사람의 피(血)를 만히 흘릴 뜻을

보임이니라。그런데 大體의 世人들은 戰爭을 한 것

무삼主義、思想、革命、國際等의 問題로만 알지 만은 實

狀은 하나 님의 이 罪惡世上의 人口를 滅하지는 攝

理의 懲罰인 동시에 또한 一方으로는 사람들 노하여 고풀

罪를 悔改하고 當身을 向하야 도라 오라고 催促하는

攝理의 政策이 을시다。默示錄六章四節을 보면 사람들

은 다 不戰主義 和平主義를 가지고 平和를 想望하는

中에 있섯지만 하나 님의 彼赤馬를 탄 天使即 戰爭을 差

持하 天使의 地上의 平和權을 빼앗서 서로 죽이게 하

심으로 사람들이 아니 하 면서 彼此를 好하기 를

맞치 사담이 개암이 예(蟻群) 들을 板上에 헛쳐 놓코 짜 흠

음 붙칠 때에 蟻群들이 싸호지 안으라고 四方으로 각

각기 여나 가지 만은 사람이 위(箒)로 쓸어 던지매 甲이

판개암이 가 乙이 판개암의 腰上에 썩러 지면 갖다나

細弱한 허리가 乙이 썩어 질 듯시 압하서 甲이 판개암이 들 賣

之喝之하매 甲蟻의 答辯은 乙을 압박프지 아니 하며 또 한 썩어 지고 심히 썩어 지는 것이 나더 사담이 위(箒)로 쓸

어 던지는 예문이다 하고 彼此를 고집 으며 싸움 하게 됨과

가치 됨이 을시다。有史以來로 처음 잇섯다는 最近歐洲

大戰의 顛末을 생 각 하여 볼지라도 亦是하고 십히 한 戰

이 아닌 것을 以下에 陳述할 바 一國 婚問題를 보아서

히 알 것고 一 過去數十年間 進化의 道即 世界的 平和를 企

待(본인(本人)의 처작한 특(특)의) 하여 오던 餘에 故라 사

皇帝니 몰나스 二世가 一 日던 날 鐵寢床에 누어서 戰苦

를 겁히 늦기는 同時에 自今以後로는 一 日지 하면 萬國

이 서로 싸호지 아니 하고 좀 살 아보았스면 하는 生覺이 을

듯하매 드대여 너러나서 萬國 平和의 問題(뜻싸움하)를

고심 연구 列強帝王의 通牒 輪議하매 一 唱百和

苦心 創議하야 列強帝王의 通牒 輪議하매 一 唱百和

로 數十餘國이 詢謀 僉同한 結果 千八百九十九年에

國의 鋼鐵大王(金)百七十五萬弗(十萬圓)을 捐

하야 荷蘭京城 헤이(海牙)에 나가 萬國의 和平 大殿(은미

兵大廳)을 威氣 樓와 갖치 空中에 夫사나기 起築하고

列強의 公衆代表者들이 年々히 合同하야 天下 萬國의

永久 平和의 大策을 講究할새 千九百七年에는 가장 盛

十三年에는 間一年(가면금년은미국, 해년은이년(殿))해서

이殿에 모히기로호대 場所亦是間一年하야 各國의

로돌녀가며모히기로 (來往費用及時日問題)로 決議의

翌年即千九百十四年에는 場所는德國코르스란쓰或으로

日字는八月二日도 決定하고 散會하였다가 翌年七月

에 列強들이 天下의 平和를 想望하고 또各其大使를 派

遣할새 或엇던나라의 代表는 앞서 二週前出發한

이도잇었는데 千萬夢想之外 同年六月廿八日 聖마

아의 맛손會(유리안들의회)員即유리안으로 聖마아에 入籍

하카부리로, 뿌린집이라하는者가, 자라에위에서 오

스트리아皇太子푸란쓰, 뉘지란트를 向하야 第二指를

한번 指示했다. 페인, 일 統統殺事件으로 因하야 同

七月廿八日에 寒, 澳의 宣戰布告가 잇는 同時에 炎々

하若火의 그勢가 亞平和를 夢想하던 列強의 稼蕪에 延

燒할새 八月一日即一夜만지라 萬國平和大會의 날

(又八日)인대, 平和會의 場所인 獨逸과 露西亞의 宣戰布告

가 또된다는 號外新聞이 排布되매 各國에서 來會하였던 所

지 그勢力을 堪當하리오 風雲이 漸々急迫하여오는 故로

그만蒼黃히 行裝을 차려가지고 논를 밟을 할 것 업시 업

드러질년(顛)잡바질패(沛)하면서 출행낭을 礎다하는

데 었던 한 年 老大使는 百方으로 盡力하야 爲先露獨

의 宣戰布告부터 取收케 하려 했스나 崑岡大火에 一蠶의

의 물과 같하야 그 戰力이 益세 됨으로 畢竟은 賽卅三章

七、八節 喪삼과 같치 一場痛哭을 하고 自己의 行李도

못가치고 뒤숨뚫다 가 났다 한다. 이것이 었지 奇巧驚

愕할만한 하나 님의 攝理의 事爲 即地의 小和를 啖앗스시

사 戰爭아니 하기로 하던 모든 사찰으로 하여곰서 로 죽이

게 하심이 아니며 또한 再臨前兆의 모든 預言대로 다 成

就됨이 가거리오. 此外에 또다시 奇巧한 한 가지 일이 잇스

니 即國婚問題를 지다. 國婚이라 함은 即列強이 互相

通婚하야 姻婭 族戚을 일우는 일이니 이는 곧 싸움을

붓치지 못하면 霍亂(腹)을 三個月式이 나얏는 더 惡

魔로 하여곰 하춤하고 痛哭하게 할만한 大妙策이 의다

불지어가 더 英德二皇은 內外從의 分이 잇고 露、英

獨三帝玉도 무삼(未詳)從兄弟의 分이 잇다 하고 任獨

로 露、班、한 諾의 四王后도亦是 무삼(未詳)從兄弟의 分이 잇  
다 하니 朝鮮法俗으로 말하면 一七八寸即 즉은 服  
남어 술만 한사이라 그런즉 누가 더 들사이에 戰爭이 잇  
스리라 고 뜻하엿스리오。그럼으로 는 永久平和의 妙  
策이라고 舌鼓를 치며 泰平을 노래 하더니 千萬意外  
歐洲戰亂即以上七、八寸服內之親의 나라 一일이 서  
토너러나 攻擊함에 甲王이 乙王을 向하야 宣戰할 마음  
이 잇스면 戰爭에는 秘密偵探이 第一인 故로 甲王의 딸  
이 假令 乙王의 子婦가 되엿다 하면 甲王이 乙王의 子婦即  
自己의 딸의 계 作戰計劃의 密探의 實을 修하야 닐아기를  
내가 이제 너의 父王과 宣戰코저 하는 데 密探에는 너에  
서 더 잘 해술사람이 업스즉 너는 速히 詳細한 回書로써 보  
내기를바란다。그러나 네가 너의 男便과 近日後에 너의 것  
될 國家와 그 民族을 너의 親庭의 父母와 너의 本國民族  
보다 더 사랑하거든 그만 두어라 萬一 密探의 回書를 주  
지 아니하면 너의 父母同生과 本國民族은 다 亡하고 말겠  
스니 이쯤생각하고 에마음대로 하여라 하엿스매 그  
말이 그 密書를 보고 答하면 自己 總便 나라이 亡하겠고 아

니 하면 自己의 親庭 나라이 亡할지라 以故로 思之 百端  
하다가 畢竟은 그 詳細한 回探書를 作送하매 甲王이  
그 探書를 覽고 直時 陸軍은 아모 停車場에서 出發하야 아  
모 곳으로 가서 如此 海軍은 아모 港口에서 出  
發하야 아모 곳으로 가서 如此 航空隊와 飛行隊  
는 東經線 度에서 出發하야 北緯線 度에 이르러 爆彈을  
던지라고 吩咐已畢에 水、陸、空三界의 路로 一時  
에 出發식켜 爆彈 銃劍으로 轟々然、閃々然、突擊破壤  
하야 乙國을 깨 강타부스러트리듯 한 結果 列強中 몇나  
라이 그 現狀과 같치 慘敗를 當하엿스니 萬一 이 國婚의  
일만 업섯더면 이 갖은 慘敗는 當치 아니 하엿슬 연 하엿다  
하니 이로써 보건대 人爲의 不戰平和의 得策이라 여를  
것이 凄絶 慘絶의 大失策이 되고 말았스니 此等의 戰爭  
은 果然 하나 님 의서 사람으로 하여곰 죽이게 하시는 赤  
馬時代가 되여 오는 始兆(四〇八)로 보여 주시서 우리 一般  
을 警醒식 하시는 일이 을 시다。(未完)

( 〽 )